

2010년 가을 학기
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9
복음서에서
(9)
부활과 밀알

성경: 요 11:25, 12:23-24, 고후 1:8-9, 4:16, 롬 8:28-29, 빌 3:10-11, 고전 15:58

I. 우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—요 11:25.

- A. 부활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밝혀진 진리를 보아야 한다.
1. 인성 안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—행 13:33, 롬 8:29 하.
 2.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, 그분의 재생산인 교회의 산출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다—벧전 1:3, 요 12:24, 고전 10:17.
 3.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—15:45 하.
 4.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러한 주요 항목들(하나님의 맏아들,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, 생명 주시는 영)이 없이는 교회도, 그리스도의 몸도, 하나님의 경륜도 없을 것이다—비교 골 1:18, 고전 12:12, 엡 4:4.
- B.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재, 부활의 실재,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.
1.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실재는 실재의 완결된 영이시다—요 14:17, 15:26, 16:13, 요일 5:6.
 2. 부활의 실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—요 11:25, 20:22, 고전 15:45 하.
 3. 실재의 영께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신다—요 16:13-15.
 4.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교회도 없다—엡 4:4.
- C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.
1.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요소에 속한 것이고,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고, 절대적으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—벧전 1:3, 엡 2:6, 비교 창 2:21-24.
 2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금 등잔대는 자라고 가지별고 움트고 꽃피어 빛을 발하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—출 25:31-40, 민 17:8, 계 1:11-12.
 3.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. 이것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이다—빌 3:10-11.
 - a.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의해 제자가 되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—비교 요 3:8.
 - b.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타고난 생명 안에서 수행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아니다—고전 3:12.
- D. 부활 안에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—고후 1:8-9.
1.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결시키시고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—9 절.

2.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많은 행사를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.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.
 - a.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사에서 그분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일하시지 않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나눠주시고 넣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—갈 1:15-16, 2:20, 4:19.
 - b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—고후 4:7-12, 살전 3:3.
 - c. 부활 안에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‘모든 것’을 통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—롬 8:28-29, 히 12:10, 렘 48:11.
 - d. 이 우주 안에 있는 고난,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관련된 고난의 주된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게 하는 것이다.
 - e.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새로워짐이 일어나야 한다—겔 36:26, 고후 4:16, 5:17, 계 21:2.
3. 부활 안에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보양됨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—고후 4:16.
 - a.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는 것이다—골 2:19, 롬 8:10, 6, 11.
 - b.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새롭게 하는 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,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드리고,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—빌 2:12-13, 3:10-11, 시 18와 제목.
 - (1) 우리는 십자가, 성령, 우리의 연합된 영,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로워진다—고후 4:10, 딤후 3:5, 엡 4:23, 5:26.
 - (2)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—마 13:43, 잠 4:18.
 - (3)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구함으로 새로움의 원칙 안에서 주님의 상에 와야 한다—마 26:29, 5:23-24, 18:21-22, 35.
4. 십자가의 죽임은 부활 생명의 나타남으로 귀결된다. 이러한 매일의 죽임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—고후 4:10-12.
5. 우리의 타고난 힘과 재능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를 위해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되도록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—빌 3:3.
 - a. 하나님에 의해 사십 년간 제쳐진 후에, 모세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—출 2:14-15, 행 7:22-36, 히 11:24, 28.
 - b. 철저히 실패한 후 베드로는 믿음에 의해 겸손함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—눅 22:32-34, 요 18:15-18, 25-27, 마 26:69-75, 벰전 5:5-6.
 - c. 싹난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안의 권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심인 부활 안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상징한다—민 17:8.
 - d. 일곱 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께서는 오직 부활 안에 있는 것들만을 존중하신다. 무엇이든 우리가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생명 주시는 영께서는 결코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실 것이다—고전 15:58, 3:12.

II. 우리는 밀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—요 12:24.

- A.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한 알의 밀이신 그분 안에 숨겨져 있었다—23-24 절.
- B.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었을 때 그분은 답답하게 눌러 계시면서,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불과 함께 신성의 영광을 해방하기 위해 죽음의 침례를 받기를 열망하셨다—눅 12:49-50.
- C.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뜨려짐을 통해 해방되었다—요 12:24.
 - 1.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담은 유일한 밀알이셨다.
 - 2.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뜨려졌을 때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—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신성한 영광—가 해방되었다.
 - 3. 이러한 의미에서,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영광이 동시에 해방된,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으로 여겨진다.
- D.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의 해방은 그분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—23-24 절, 눅 24:26.
- E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하셨고,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—요 17:1, 행 3:13.
- F. 그러한 영광스럽게 됨은 그리스도를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겼는데,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.
- G.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밀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을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의 합병 안으로 이끄셨다.
 - 1. 신성한 삼일성 안의 하나님은 합병체이시다—요 14:10-11.
 - 2.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합병체가 되었다—16-20 절.
- H.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,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과의 확대된, 신성하고 인간적인, 우주적인 합병체가 변형된 밀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음과 같은 세 방면으로 나왔다.
 - 1. 첫째 방면은 그분의 안식과 만족과 나타남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다—2 절.
 - a.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할 곳들이다—2 절 상.
 - b. 아버지의 집은 구속받은 선민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문하심으로 건축된다—21, 23 절, 엡 2:19-22, 3:16-19.
 - 2. 둘째 방면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산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다—요 15:1-8, 16.
 - a.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표징인 참 포도나무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.
 - b. 이 포도나무의 접붙여진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,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생명 연결 안으로 이끌려져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었다.
 - 3. 셋째 방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 영의 아이, 새 사람이다—16:13-16, 19-22.
 - a. 새 아이, 새 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—엡 2:15.
 - b.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완결할 것이고,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이다—4:23-24.